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on Children's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황 해 신*
상명대학교

Hwang, Hae Shin
San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on children's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to see whether the early exposure to English education affects children's competencies of both English and Korean. Based on this purpose, it attempts to examine whether it supports additive or subtractive bilingualism.

The competencies of both English and Korean of the children with early English education were, therefo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hildren without it,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mpetencies was also studied. For this research, two different groups of children - one with 48 children who attend English kindergarten and the other with 60 children who attend only Korean kindergarten - took PPVT-R in Korean and in English each.

The result shows that children with early English education have more English competency than those without it. No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are found in Korean competenc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mpetencies proves positive in children with early English education. It can thus be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early English education is partially positive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which may support the additive bilingualism that children's second language can improve without losing their native language competency.

In addition, this result will be able to provide for us the direction and the guideline to the polic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early education.

Key words : early English education,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additive bilingualism, subtractive bilingualism

I. 서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영어사용 능력이 강조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영어조기교육론'이 대두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 부모들의 유별난 교육열에 부합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수많은 영어교재들이 출판되었고, 원어민에 의해서 영어로만 활동이 진행되는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있

다. 이렇듯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고조는 이미 찬반론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유아의 영어교육을 부추기게 되었다(서혜라, 199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인식은 정확한 평가 없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반응도 양극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어조기교육은 무조건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영어조기교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아기의 영어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영어교육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 2001)이 계속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B00219)."

corresponding author; Hae Shin Hwang
Tel. (02) 2287-5346, Fax. (02) 396- 5968
E-mail :hshwang@smu.ac.kr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찍부터 영어조기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의 팽창이라던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발달병리 학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조기 영어교육의 강사,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유아의 뇌 발달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습의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우남희, 2002)도 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할수록 아동들이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특히 발음에 대한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워진다고 하여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이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실태파악이나 검증되지 않은 생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아직도 활발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중 언어사용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이다. 즉 한 아동이 동시에 두 개의 언어를 습득 또는 학습하는 것이 그 아동의 언어적 발달, 인지적 성장 그리고 교육적 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 중의 하나는 이러한 결과들이 영어조기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교육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장미경,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인지 수준이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취학 전의 어린 나이에 이중언어에 접하는 것에 대한 영향도 아직 미비한 상태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과연 유아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영어조기교육의 경험 유무, 영어에 노출되는 기간에 따라 유아들의 영어 발달과 한국어 발달은 어떠한지, 그리고 두 가지 언어 발달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어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비교하는 것에 더해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아동들이 영어 교육으로 인해 모국어인 한국어 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이중언어 능력은 조기 영어교육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1)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은 조기 영어교육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유아들의 영어 능력은 조기 영어교육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유아들의 이중언어 능력은 영어교육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1)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은 영어교육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유아들의 영어 능력은 영어교육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1) 조기 영어교육을 받는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조기 영어교육을 받지 않는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이중언어 사용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데, 이중언어 발달의 과정과 결과, 사고와 다중언어 사이의 상호작용, 다양한 연령시기에 다중언어에 체계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동의 심리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의 발달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사회적, 교육적 맥락 등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황혜신과 황혜정,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이중언어(bilingualism)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중언어가 학업적, 언어적, 인지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Bialystok, 1988).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인식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가지 언어의 습득은 다른 한 언어

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은 '균형적 이중언어(balanced bilinguals)'의 관점에 의해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잘 구사하는 아동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서 인지, 상위인지, 상위언어, 사회언어가 우수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며, 아동이 모국어의 상실 없이도 다른 언어를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은 언어에 대한 인식과 조절의 증가, 인지적 융통성, 유추와 분류기술의 증진, 구문과 상징에 대한 이해 등도 포함된다(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Mulhern, 2002; O'Toole, Aubeeluck, Cozens, & Cline, 2001)). 더구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있어서 이러한 상위 언어적, 상위 인지적 장점은 취학전 시기에 이미 나타난다고 한다(Campbell & Sais, 1995; Diaz, Padilla & Weathersby, 1991).

과거에는 이중언어 사용을 일종의 핸디캡으로 여겼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조건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 즉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 언어간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더 뛰어나고 학교생활에도 동기의식이 높아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장미경, 1995). 모국어만을 습득할 때에는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의식적인 주의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두 가지 부호를 구별하기 위해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 의식적으로 주의집중을 해야 하므로 상위언어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이다(Galambos & Goldin-Meadow, 1990).

최근의 연구(한유미와 조복희, 1999)에서도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 습득을 방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어 학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언어감각이 날카롭게 되어 모국어를 더욱 세련되고 풍요롭게 구사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중언어가 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있다.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국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 때 더 잘 일어난다고 한다. 대표적 학자인 Wong(1991a,b)은 어린 시기에 제2언어(영어)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의 발달이 느려지며 점차 일반적인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아동 중에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집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져오며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발달상 높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으며 이 입장의 차이에 따라 조기영어교육이 지지 받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먼저 역치가설(threshold hypothesis)을 제창한 Cummins(1984)는 외국어 학습은 외국어와 모국어가 모두 유창할 때에만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중언어 사용은 두 언어 모두 능숙한 아동의 경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icciardelli, 1992).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모국어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에 일찍 노출되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모국어와 외국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에 비해 Diaz와 Klingler(1991)는 외국어 학습의 효과는 오히려 외국어의 접촉 수준이 매우 낮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는 신역치가설(new threshold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언어 사용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주로 외국어의 초기 학습단계에서의 경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역치 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의 어휘수준이 열댓개 정도이고 간단한 인사말이나 쉬운 정도의 대화만 할 정도로 외국어가 능숙하기 전에도 언어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Yelland et al., 1993).

위에서 제시한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그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모국어도 완전히 숙달되지 않는 아동이 일찍부터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외국어의 습득은커녕 모국어의 발달도 저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찍부터 외국어에 노출되어도 모국어의 습득에 지장 없이 균형있는 이중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중 언어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우리나라 아동에게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에 이민 온 스페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스페인어와 영어는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

장구성이나 어원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영어를 접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에 대한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가능하지 않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이 일찍부터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조기교육을 경험할 경우 그들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은 어떠한지, 또한 영어교육을 받지 않는 유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조기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원어민에 의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 유치원(학원)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다. 영어 유치원의 경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영어로 진행되며 한 교실에 12명 이하의 유아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활동한다. 활동내용은 Sharing Time / Theme Activity / Language Arts / Show & Tell / Hands on Activities / Gym / Field Trip / Music / Story Time / Arts & Crafts / Computer Class / Character Education / Creative Arts / Journal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활동은 원어민 교사가 담당한다.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는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로 이 곳에서도 특별활동의 일부로 아동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영어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나절만 운영되는 유치원보다는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비교집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의 유아들 모두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서울의 중류층 가정에 살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영어 유치원의 어머니의 경우 44.6%가 대졸이며 다음으로 고졸이 35.3%, 대학원 이상이 1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어린이집의 어머니의 경우는 대졸이 56.7% 고졸이 32.3%, 대학원 이상이 12.3%로 나타나,

두 기관 모두 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도 영어 유치원의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56.1%, 대학원 이상이 21.6%, 고졸이 20.6%이며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도 대졸이 61.6%, 대학원 이상이 32.2%, 고졸이 13.2%로 두 기관 모두 대졸, 대학원 이상, 고졸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수준인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영어 유치원의 경우는 300만원대가 32.3%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0만원대(22.9%), 200만원대(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는 200만원대(38.5%), 300만원대(15.3%), 100만원대(14.3%)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의 경우는 영어유치원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을 제외한 두 기관의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비슷하며,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 어린이집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의 경우 대학원의 부속 어린이집으로 대부분의 부모의 경우 대학원생이 많아서 학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은 낮다. 그러나 고정수입은 낮으나 생활수준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잠재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며 수입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에 더하여 두 집단의 유아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언어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지능을 검사하여 이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한 외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 아동들의 연령은 각각 만 3세 아동 36명, 만 4세 아동 34명, 만 5세 아동 38명이며 성별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영어유치원	일반어린이집
성별	남	24	30
	여	24	30
연령	3세	16	20
	4세	14	20
	5세	18	20
계		48	6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했다. PPVT를 통하여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을 파악하였으며, Wechsler 유아지능검사를 통하여 유아의 지능검사를 했다.

1) PPVT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를 위하여 PPVT-R (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Revised)의 영어판과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영어 어휘력 검사는 PPVT-R (Dunn & Dunn, 1981)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어휘력 검사는 그림어휘력검사(PPVT-R의 한국어판,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1995)를 사용하였다. 그림어휘력검사의 문항 구성은 PPVT-R의 문항을 기초로 하고 그 외에 초등학교 교과서 언어 발달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로 선별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즉,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PPVT-R의 한국어판과 영어판은 모두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두 점수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언어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왔으며,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의 신뢰도 또한 떨어졌다(Wilen & Sweeting, 1986).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PPVT-R의 영어판과 일치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준 PPVT-R의 한국어판인 그림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검사의 점수는 각 아동들의 원 점수를 연령 기준에 의해 백분위점으로 산출하고 이를 표준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다.

2) Wechsler 유아지능 검사

유아의 영어조기교육의 경험이 아닌 지능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웨슬러 유아지능 검사의 한국어 판인 K-WPPSI(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1996)를 사용하였다. K-WPPSI 중 언어지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어휘검사문항 25문항과 공통성문항 20문항 총 45 문항을 실시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3년 3월에 이루어졌다. 서울시에 소재한 영어학원(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본 연구를 위한 검사를 하였다. 본 검사에는 연구자와 3인의 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우선 각 기관을 방문하여 원장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원장으로부터 각 기관의 수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어 유아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검사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자유활동시간에 아동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Wechsler 검사, 영어판 PPVT-R 검사와 한국어판 PPVT-R 검사를 하였다. 두 기관 모두에서 각 검사들간의 간격은 일주일로 하고 검사의 순서도 같게 하였다.

4. 자료분석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ANCOVA,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언어 능력

유아들의 언어 능력을 영어 조기교육 유무에 따라 살펴 보았다. 먼저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어 능력을 살펴보았다.

1)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한국어 능력

한국어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 유아들의 연령별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집단의 동질화를 위해서 아동의 지능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능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며 영어 조기교육유무(영어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한국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집단에 따른 주요효과도 나타나지 않았

<표 2> 집단과 연령에 따른 한국어 점수

	3세			4세			5세			전체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영어유치원	16	86.6	13.3	14	97.6	13.1	18	102.4	14.2	48	95.8	15.0
일반어린이집	20	99.7	16.3	20	101.2	27.8	20	97.2	15.8	60	99.4	20.4
전체	36	93.9	16.2	34	99.7	22.7	38	99.7	15.1	108	97.8	18.2

<표 3> 집단과 연령에 따른 영어 점수

	3세			4세			5세			전체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영어유치원	16	64.0	13.9	14	40.3	9.2	18	74.7	11.8	48	61.1	18.4
일반어린이집	20	41.5	7.8	20	35.2	9.0	20	29.1	4.2	60	35.3	8.8
전체	36	51.5	15.6	34	37.3	9.3	38	50.7	24.6	108	46.7	18.9

으며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과 그렇지 않은 유아들간에 한국어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어 조기교육에 따른 영어 능력

영어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 유아들의 연령별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두 집단의 동질화를 위해서 아동의 지능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능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영어 조기교육 유무

(영어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F=26.95, p<.001$)과 집단간($F=173.66, p<.001$)에 유의한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F=34.36, p<.001$)에도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 보다 높은 영어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영어 유치원의 유아들은 5세 아동이 3세나 4세의 유아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오히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영어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영어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영

<표 4> 연령과 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공변인	145.9	1	145.9	1.59
집단	15906.4	1	15906.4	173.66***
연령	4936.8	2	2468.4	26.95***
집단x연령	6294.7	2	3147.3	34.36***
오차	9251.0	101	91.6	
합계	274168.0	108		

어 교육의 내용이 연령에 따라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수준의 영어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화하는 PPVT의 특성상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영어교육 기간에 따른 언어 능력

얼마동안이나 영어를 공부하였는지에 따라 아동들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기간에 따라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살펴보았다. 영어를 단기간 공부하고 있는 유아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 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한국어 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1) 영어교육 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

한국어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기간별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어 교육 기간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점수

	N	M	SD	F
1년	14	92.4	13.1	1.370
2년	16	96.6	13.3	
3년	18	100.4	14.2	
전체	48	96.8	13.7	

연령 효과를 제외한 영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른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고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에 노출된 기간, 즉 영어를 배우고 있는 기간을 독립변수, 한국어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한국어 점수는 유아의 영어 경험 정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의 한국어 점수는 영어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않았지만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어교육 기간에 따른 영어 능력

영어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기간별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영어교육 기간에 따른 유아의 영어점수

	N	M	SD	F
1년	14	40.3	9.2	33.72***
2년	16	64.0	13.9	
3년	18	74.7	11.8	
전체	48	61.1	18.4	

연령 효과를 제외한 영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른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고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에 노출된 기간, 즉 영어를 배우고 있는 기간을 독립변수, 영어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영어 점수는 유아의 영어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3.7, p<.001$). 즉 유아들의 영어 점수는 영어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어조기교육 경험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

영어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아들의 한국어와 영어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영어점수와 한국어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1) 영어 조기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영어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42$,

p<.001). 즉 영어를 잘하는 유아의 한국어 점수가 높고 반면에 영어 점수가 낮은 유아일수록 한국어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어 조기교육 경험이 없는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영어 조기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두 점수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언어 능력을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영어조기교육이 조기교육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유아들이 일찍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원과 교재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나친 사교육비의 팽창이라던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의 문제, 유아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발달병리학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일찍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모국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국어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파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국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정확한 실험이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조기영어교육에 접근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조기교육의 실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즉,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영어조기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국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접하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중언어 습득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영어조기교육의 부정적인 면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라앉고 있지 않는 영어조기교육의 방향에 올바른 길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어려서부터 영어조기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경

<표 7> 영어와 한국어의 상관관계

	한국어	영어
한국어	1.00	.42**
영어	.42**	1.00

** p<.001

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영어조기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에 연구 결과가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모국어 발달에 지장을 주고 이중언어발달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진다면 지금 불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표적인 영어조기교육 현장인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발달 양상은 어떠한지, 이들과 비교하여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언어발달은 상대적으로 어떠한지, 또한 한국어와 영어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유아들의 영어능력은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 보다 뛰어난 반면에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 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결과는 당연할 것이다. 영어 유치원의 유아들이 일반 어린이집의 유아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영어를 배우며 영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중 주목할 것은 영어 유치원의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가 일반 어린이집의 유아들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영어 능력은 적어도 한국어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영어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들의 영어 점수는 향상되었으며 반면에 한국어 점수는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영어능력은 유아들이 영어를 노출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의 효과를 배제하고라도 유아들의 영어능력은 영어를 배울수록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한국어 능력은 줄어들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유아들의 한국어와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경우 한국어 점수와 영어점수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한국어 점수와 영어점수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한국어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영어 점수가 낮은 유아들의 한국어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적 이중언어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황혜신과 황혜정, 2001; 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영어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영어점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은 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언어발달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록 미숙한 단계일지라도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은 적어도 이중언어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가적 이중언어주의를 지지하며 영어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의 두 언어가 균형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외국어 능력이 모국어의 회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어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비슷한 정도의 모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더해 외국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조기영어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아들에게 영어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영어교육의 방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아의 건전하며 긍정적인 전인발달에 목적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중언어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만을 놓고 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영어조기교육은 균형감을 가지

고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들의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전인발달의 측면에서 득과 실을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따져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조기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이중언어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지만 한편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은 후속연구에서 꼭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설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두 집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부모들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였으며 지능검사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의 영향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처치-사후검사의 연구설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지지 받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사전검사-처치-사후검사의 연구설계로 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휘력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휘력 검사만으로 언어능력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유아들은 한국판 PPVT와 영어판 PPVT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비록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도 동일한 검사를 두 번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검사효과에 인한 변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을 통한 유아의 이중언어능력이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상위언어나 전반적인 인지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영어조기교육, 이중언어발달, 부가적 이중언어주의, 감가적 이중언어주의

참 고 문 헌

- 박혜원, 박금주, 박광배(1996).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혜라(1999). 영어 조기교육의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2001).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4.
- 우남희(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장미경(1995). 효과적인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제안-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 교육 분석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유미, 조복희(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9-216.
- 황혜신, 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80.
- Bain, B. (1996). *Pathways to the peak of Mount Piaget and Vygotsky: Speaking and cognizing monolingually and bilingually*. Rome: Bulzoni Editore.
- Bialystock, E. (1988). Levels of bilingualism and levels of 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60-567.
- Bialystok, E. (Ed.). (1991).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R., & Sais, E. (1995). Accelerated metalinguistic (phonological)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1-68.
-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Shapson, S. & D'Oyley, V(Eds.), *Bilingu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adian Perspectiv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Diaz, R. M. (1985). Bilingual cognitive development: addressing three gaps in curr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56, 1376-1388.
- Diaz, R. M., & Klinger, C. (1991). Towards an explanatory model. In E. Bialystock (E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az, R. M., Padilla, K. A., & Weathersby, E. K. (1991).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preschoolers' private spee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77-393.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alambos. S. J., & Golden-Meadows. S. (1990). The effects of learning two languages on level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gnition*, 34, 1-56.
- Galambos, S. J., & Hakuta, K. (1988). Subject-specific and task-specific characteristic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9, 141-162.
- Hakuta, K. (1987).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in mainland and Puerto 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72-1388.
- Hakuta, K., & Diaz, R.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A critical discussion and some new longitudinal data. In K.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ume 5* (pp. 319-344). Hillsdale, NJ: Erlbaum.
- Mulhern, M. M. (2002). Two kindergarteners' constructions of literacy learning in Spanish: A challenge to superficial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5(1), 20-39.
- O'Toole, S., Aubeeluck, A., Cozens, B., Cline, T. (2001). Development of reading proficiency in English by bilingual children and their monolingual peers. *Psychological Reports*, 89, 279-282.
- Ricciardelli, L. A. (199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reshold theor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1(4), 301-16.
- Wong F. L. (1991a).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346.
- Wong F. L. (1991b). A question for early-childhood programs: English first of families first? *Education Week*, 10(39), 32-34.
- Wilén, D., & Sweeting, C. (1986). Assessment of limited English proficient Hispanic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59-75.
- Yelland, G. W., Pollard, J., & Mercuri, A. (1993). The metalinguistic benefits of limited contact with a second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423-44.

(2004. 06. 27 접수; 2004. 08. 10 채택)